



대우건설

하노이 신도시 우리 손으로 만든다

“아시아 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선점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 확대와 더불어 중국 시장 재진출을 추진할 것입니다.”

박창규 대우건설 사장(58)은 "해외시장 진출 분야가 석유·가스 플랜트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아시아보다 중동, 아프리카 비중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금호산업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이 있으면 진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2년 아시아 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한 대우건설은 말레이시아 60층 높이의 유추안(Yow Chuan) 타워 건설공사, '21세기 신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357km의 파키스탄 고속도로, 인도 다울리강가담 건설공사 등 굵직굵직한 공사를 수행했다. 이 같은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우건설이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지역 최대 건설사업은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1996년 베트남 전 공산당 서기장 도무이의 요청으로 시작한 하노이 신도시 건설사업은 1997년 말 불어 닥친 동남아시아 금융위기로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후 2003년 대우건설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 설립으로 재개됐다.

하노이 신도시는 63만평(207ha)에 5000가구의 아파트와 비즈니스 센터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총 7억 달러가 투입된다.

박 사장은 "국내 건설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행정·금융·주거·레저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베트남에 다녀온 박 사장은 "베트남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임은 틀림없으나 사업 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많은 건설업체들이 진출해 경쟁도 치열하다"면서 "국내업체간 과도한 경쟁은 사업성 확보에 장애를 주는 만큼 신중한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대우건설은 현재 필리핀 3개 토목현장과 팔라우 섬 도로건설 현장에도 진출해 있다.

리핀 마닐라에서는 매년 우기마다 반복되는 만성적인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방과 수로, 펌프시스템 등 홍수통제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2000년 9월 시작된 이 공사는 지난 4월 끝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위치한 기존 도로를 보수하는 공사도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가 한창이다.

필리핀 남동쪽 팔라우 섬에서는 섬을 순환하는 총연장 85km 고속도로도 건설하고 있다. 2000년 9월 시작된 이 공사는 지난 4월 끝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위치한 기존 도로를 보수하는 공사도 한창 마무리 중에 있다. 필리핀

남동쪽 팔라우 섬에서는 섬을 순환하는 총연장 85km 고속도로도 건설하고 있다.

30년 대우 맨으로 토목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박 사장은 과거 파키스탄 고속도로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아시아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다.

그는 "80~90년대 말까지 국내 건설업체들이 아시아 국가에 진출해 각 나라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대표 건축물들을 시공했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높은 편"이라면서 "하지만 현지 지역업체의 성장과 중국 업체 진출로 영향력이 과거보다 위축되고 있어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한 달에 일주일 이상은 해외에서 보내고 있다.

박 사장은 "해외사업은 대우건설이 세계 10대 건설업

체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며 "토목, 건축 공사 중심의 아시아 시장 비중은 2006년 말 현재 전체 해외 매출(8044억원) 중 약 3%를 차지하고 있지만 틈새시장을 개척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심윤희 기자 기고 발췌]



"아시아 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선점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 확대와 더불어
중국 시장 재진출을
추진할 것입니다."